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6일 11시 06분


하우스콘서트 후기 [엄효림 .효선]

2015.08.26 조회수 118 등록자 홍정아

아빠.엄마와 온가족이 저녁식사후 서둘러 문화예술회관으로
출발
백성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테니 니더마이어 연주였다
외국피아노 남자 선생님 이름이 너무 길었다 혁 숨참-
무대위에서 가까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고 신기했다.
아이들이 돌아다녀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...
두분이 부부라는것에 놀랐고 같은 일을 하니 소통이 되서 안싸우고
더 행복할것 같다.
아이들이 누워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엄마까지 다리를 쭈욱
펴고 무대위에서 누워 얼굴에는 종이를 덮고 자는 모습이 너무
한심스러워 보였다
피서지에서 돛자리 깔고 어른들이 주무시는 그대로였다
좀 공감이 되지 않은 행동이였고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.
연주가 끝나고 사진도 받고 기념촬영도 했다.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resized_20150801_235843_-60720971.jpg (353 hit / 83.6 KB) 

[미리보기](#)

[글쓰기](#)

[목록](#)

이전글

[\[엄효선\] 돈키호테 국립발레단 공연을 보고](#)

다음글

[아쉬운 연극수업을 마치며](#)

MokPo - Si
Web Contents

